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46
SEP 28 2020

발간년월 2020년 9월 28일 (통권 제146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이주호 감사 최재선 담당 김엄지/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역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 북극 지역 카렐리야 공화국에 투자 러시
- 러 극동대표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한다.
- 러시아 정부, 공급 과잉에도 LNG 생산 확대
- 중국, 중앙아시아 일대일로 사업 일단 멈춤

전문가 칼럼

- 4차 산업기술 기반의 러시아 물류산업과 한-러 협력 방향

주요 통계

- 2020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6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6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러 북극지역 카렐리아 공화국에 투자 러시

■ 북극투자포털에 운송 및 물류 부문 등 20개 기업체가 카렐리아에 투자 신청^{a)}

- 러시아 북극지역인 카렐리아에서 20개 업체가 약 2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위한 입주 신청을 완료했음. 이번 투자로 이 지역에 27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주로 운송 및 물류 관련 기업체가 다수이며, 이 외에도 관광, 목재가공, 광업, 어업 및 서비스업 등 다양함

■ 러시아 북극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국가지원법을 제정하며 세제 혜택 확대

- 7월 13일에 제정된 북극권 전용 특혜제도 도입 관련 법률에 따르면, 러시아 북극지역은 관세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며 경제자유구역으로 간주됨. 투자기업에게는 연방세, 지방세, 사회보장세 인하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짐
-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북극권 투자기업 등록부는 투자 관련 업무를 맡게 될 운영사가 관리할 예정임
- 신규 법에 명시된 북극권의 범위는 무르만스크주, 네네츠 자치구, चु치 자치구, 야말-네네츠 자치구, 아르한겔스크시, 노틸스크시, 카렐리아 공화국 등을 포함함

■ 카렐리아 공화국은 2017년 러시아 대통령령에 북극지역으로 신규 추가되었음

- 카렐리아는 유용 광물 채굴업의 비중이 비교적 큰 지역으로, 지하자원을 채굴하는 산업이 발달된 곳 중 하나임
- 하지만 이곳은 러시아 북극지역 내에서도 주민 소득, 인구수 등이 중하위권을 차지하고, 빈곤층과 부유층의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지역이었음
- 러시아는 카렐리아를 포함한 개발이 미흡한 북극지역에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광물자원 사업 실현 등을 통해 북극항로 물동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됨

그림. 러시아 카렐리아 공화국



자료: <https://tass.com/economy/1204633>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a) <https://tass.com/economy/1204633>(검색일: 2020년 9월 25일)

러 극동대표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한다.

■ 러시아 극동의 실질적인 행정 중심청인 대통령 극동연방관구 전권 대표부를 현재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할 예정^{a)}

-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한 달 이내로 대표부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며, 루스키 섬에 있는 극동연방대 내 건물이 이전 예정지가 될 것이라고 밝힘
-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이후 러시아의 거대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전국을 8개 연방 관구로 분리하고 각 지구의 대표를 임명한 바 있음
- 전권대표는 각 연방주체의 활동을 감독하며 지역의 정보를 연방 대통령에서 보고함

그림. 극동연방관구의 행정구역 변화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푸틴과 러시아 극동개발 20년', 2019. 12.

■ 2018년 푸틴 대통령이 극동연방관구 중심도시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 추진^{b)}

-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2018~2024)에 들어 신동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극동지역의 행정 중심지를 변경하고 극동개발부의 업무 확대 및 조직개편(극동북극개발부 출범) 등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12년 APEC 개최 이후 연방수준 도시로 부상한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국영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극동지역의 메카로 발전하였음
- 하지만 여러 문제로 하바롭스크에 대표부가 남아있었지만, 이번 대표부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 것으로 평가됨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a) http://debri-dv.com/article/25808/polpred_yuriy_trutnev_provel_zasedanie_soveta_okruga_v_o_vladivostoke(검색일: 2020년 9월 25일)

b)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푸틴과 러시아 극동개발 20년, 2019.12. pp.152-158

러시아, 공급과잉에도 LNG 생산 확대

■ 코로나 사태 및 유가 하락으로 LNG시장의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각해짐^{a)}

- LNG 공급 분야는 글로벌 경제에서 유망한 산업 중 하나임. 세계LNG수입자그룹(GIIGNL)b) 자료에 따르면, 세계 LNG시장 규모는 2017년에 12% 증가, 2018년에 8.3% 증가, 2019년에는 13% 증가하여 3억 5,500만m³에 달함
- 2018년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에서 LNG가 차지한 비율은 40%였지만, 2040년에는 6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의 LNG플랜트는 가동을 중단했고, 개발 사업 또한 연기되었음. 페루 LNG 플랜트는 가동이 중지되었고, 호주와 캐나다가 계약한 LNG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이후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이 대규모 LNG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계LNG시장은 공급과잉 현상이 뚜렷해지기 시작함. 동시에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진 기후로 인해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하였음. 더불어 코로나 사태 및 유가 하락으로 LNG시장의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각해짐

■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북극지역에서의 LNG 생산량을 증가시킬 계획임^{a)}

- 세계 LNG 공급량에서 러시아가 차지한 점유율은 5.8%에서 2019년 8%로 증가함. 그 이유는 노바텍이 야말LNG플랜트에서 연간 1,650만 톤을 생산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약 5%를 차지하게 되었음. 노바텍 회장은 노바텍이 향후 세계LNG시장의 최대 20%까지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올해 2월 러시아 정부는 LNG를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스 수출 관련 법’에 대한 개정안을 국가두마(러시아 하원)에 제출했으며, 5월 발효되었음.
- 가스프롬은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은 가스프롬(Gazprom)사(社) 뿐이며, 2013년 1월 1일까지 가스매장지 개발에 허가를 받은 기업만 해외로 LNG를 수출할 수 있음
- LNG 수출허가권을 받은 기업은 노바텍(Novatek)사(社)이며, 야말LNG의 연간 LNG공급량은 약 1,800만 톤임. 그밖에도 북극LNG-2 플랜트를 건설 중이며, 2023~2025년에 3단계가 진행될 예정임

■ 현재 추진 중인 LNG플랜트 건설 사업들이 완료되면, 연간 LNG처리량은 7,9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a)}

- 현재 러시아에서 사할린-2 및 야말LNG 사업을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그밖에도 «발트해 LNG» (Balt-LNG), «크리오즈가즈 - 비소츠크»(Cryogas-Vysotsk)(2단계), «북극 LNG-2»(Arctic LNG-2), «오브스키LNG»(Obskiy LNG), «노바텍-캄차카»(Novatek - Kamchatka), «뻬초라 LNG»(Pechora LNG), «로스텍-아르한겔스크»(Rostec-Arkhangelsk), «야쿠츠크-LNG»(Yakutia LNG) 등 중소규모의 LNG플랜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김세희 현장실습생, 부산대학교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analitika/1691/85524/> (검색일: 2020년 9월 23일)

b) International Group of Liquefied Natural Gas Importers

중국, 중앙아시아 일대일로 사업 일단 멈춤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중앙아시아 순방 중 코로나19 대응 협력은 강조했으나 일대일로 (BRI) 프로젝트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음

-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9월 12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와 회담을 진행했음. 다음날 비슈케크를 방문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소론바이 제엔베코프(Sooronbai Jeenbekov)를 만남
- 중국-키르기스스탄 회담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BRI) 프로젝트 구상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왕이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키르기스스탄을 지원하고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할 수 있게 협력할 것임을 더욱 강조했다
- 회담에서 키르기스스탄 외채에 절반에 가까운 18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수출입(Exim) 은행에 상환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중국 매체에는 보도되지 않았음
- 키르기스스탄은 구소련 국가들 중 가장 대중국 무역에 의존적인 국가임. 2020년 상반기에 대외무역에서 53%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음
- 지난 4월, 중국 개발은행 분석가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가난한 채무자와의 재협상은 가능했지만, BRI(일대일로) 대출은 해외 원조가 아니므로 최소한 원금과 중도금이라도 회수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중국-카자흐스탄 회담에서 왕이는 나자르바예프가 양국 간의 유대를 증진시킨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카자흐스탄의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해 신봉했으나, 정작 지난 6월 비공식 회의에서 합의했던 6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음
- 왕이의 방문 이후에 알마티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는데, 이들은 중국의 ‘팽창주의’에 항의하고 중국 대사의 퇴출을 요구하였음

■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유지하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영향력 행사 지속

- 왕이가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강조한 것은 제3자의 내정간섭을 금한다는 상호공약이었음. 특히나 2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중앙아시아 순방 이후 중국의 양자 및 다자 외교 중요성이 높아졌음

- 신장 위구르 지역의 중국 대사관 측은 폼페이오 장관의 서부 신장 위구르 지역의 투르크인과 무슬림 소수민족 방문을 격렬히 비난했음
- 서부 신장지역과 폭넓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인들은 중국의 정책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당국은 지역 활동가들에게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였음. 반면에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UN에 보내는 중국의 신장지역 정책에 찬성하는 서한에 서명하지 않았음

이하선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asunlee@hotmail.com)

참고자료

- a) <https://russian.eurasianet.org/во-время-турне-по-центральной-азии-глава-мид-китая-не-стала-акцентировать-«пояси-и-путь»>
(2020년 9월 20일 검색)



4차 산업기술 기반의 러시아 물류산업과 한-러 협력 방향

권용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연구원

“세계는 왜 4차 산업기술에 집착하는가?”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을 꼽으며 경제, 산업, 교육, 정치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화 패권을 쥐고자 첨예한 경쟁을 벌여가고 있다.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화’라는 용어는 나라마다 다양하게 표현된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으로, 중국은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미국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독일은 ‘산업 4.0(Industry 4.0),’ 그리고 러시아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가 그것이다. 국가별로 IC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산업과 경제사회 구조를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주안점이나 상황에 따라 표현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본질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활용한 목표 달성 전략이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 등 구체적 내용은 모두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4차 산업기술인데, 대표적으로 인공지능/빅 데이터(인공지능 플랫폼, 빅 데이터 등), 5G(초고속 인터넷 기술 등), 정보보호(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반 기술 등), 스마트공장(스마트 제조, 3D 프린팅 등), 물류(로봇-드론 관제 기술, 스마트 패키징/화물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등)기술 등이 그 핵심 요소기술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우수 기초기술의 혁신적 개발과 융합의 산물로 탄생하는 4차 산업기술 및 관련 요소기술의 선제적 확보는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을 제패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와 첨단 물류산업 태동”

러시아는 과거 구(舊)소련 시절부터 자국의 주력 분야인 군사·항공·우주 분야와 더불어 파생된 제조·소재·IT 등의 분야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제조 산업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로 관련 분야의 유망한 인재가 서방으로 유출되었고, 이후 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악재까지 겹치면서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모토로 하는 돌파구 마련에 모든 국가 역량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만 했다.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 경제 발전의 새로운 체계로 전환을 위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3기(2012~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신동방정책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중국, 한국, 일본 등 급부상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원동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동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빅 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때문에 2016년에 들어 러시아 내에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론이 대두되었고, 푸틴 정부의 집권 4기(2018~)에 들어 그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범국가적 움직임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뿐만 아니라 극동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을 통하여 극동지역 디지털 발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표명하였고, 극동 지역 내 벤처 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곧 러시아 내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획기적 변화를 불러 일으켰으며, 그중에서 세간의 관심을 끄는 분야 중 하나는 물류산업 분야였다.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며, 철도, 해운, 항공 등의 풍부한 물류 인프라를 통하여 자국 내 산업 전반을 견인하고 있는데, 푸틴 정부가 강조하는 디지털 경제가 더해진다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디지털 경제 기반의 혁신적인 물류산업으로 확산에는 앞서 언급했듯 다양한 요소기술이 요구된다. 물류의 이동과 추적에는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이, 운송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로봇·드론 및 관제기술이, 모든 물류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및 암호 화폐 기술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 제약·바이오, 식품 등 특수한 운송 환경을 요하는 경우 콜드체인과 같은 스마트 패키징 시스템도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ICT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물류 안전관리 및 지능형 사고 대응 기술은 더욱 고도화된 4차 산업기술 기반의 물류산업 환경 확보를 촉진할 것이다.

실제로 블라디보스톡 항은 세계 최대 해운사로 꼽히는 머스크와 ICT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IBM이 합작한 블록체인 플랫폼인 트레이드렌즈(TradeLens)를 도입하여 화물 선적과 하역 등의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선적 계획 작성, 입출항 실적 관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외항화물과 연계된 내항화물의 취급량 확대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철도청은 블라디보스톡 항으로 수입된 화물에 대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였는데, 이로써 기존의 종이문서로 진행되었던 법적 절차를 전자화 시키면서 화물의 환적 시간을 기존 5일에서 21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된다. 또한, 러시아 최대의 실리콘밸리인 스콜코보 혁신단지는 AI, 블록체인, 암호 화폐, 공정 자동화 등 4차 산업 기반의 물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 및 외국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러시아로서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한 첨단산업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초기술의 우수성에 비하여 물류 관련 상용화 기술 개발 역량이 다소 불균형하기 때문에 전통 산업과 거대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으로의 도약과 디지털 경제의 완성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게 러시아, 그리고 한-러 협력 방향”

1990년 한국-소련 간 수교 이래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해 왔다. 90년대~2000년대에는 러시아 원천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다양한 분야로 상용화시킨 사례도 있는데, 러시아의 통신기기 및 레이더 잡음 제거 기술이 우리나라 기업의 통화 노이즈 제거 기술로 응용이 되었고, 위성의 표면처리 기술이 에어컨 결로 방지 기술로 재탄생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의 협력이었고 국내 종합적 對러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단발적인 성과로 남긴 했으나,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

러시아에서 신동방정책을 내세울 때 우리나라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를 자처하였고, 4차 산업기술을 쫓고 있는 글로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양국 간 기술협력-스타트업-시장진출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범부처(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수단으로 한-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과 우리나라가 잘하는 상용화 기술개발을 함께 융합하여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 분야에 활용 가능한 4차 산업 핵심 요소기술 완성에 양국이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물류산업 기술 개발과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은 푸틴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NTI) 등의 정책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러시아 자국의 기술과 자본만으로는 완성이 어려워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한국은 지금의 적기를 활용하여 對러시아 협력 전략에서 단순한 양자 관계를 초월한 기술개발과 新시장개척을 동시에 이룩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양국 정상은 4차 산업 관련 협력 추진을 합의한바 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이니셔티브(가령, 한-러 디지털 물류 이니셔티브)를 선언한다면 이후 핵심 요소기술의 개발과 철도, 해운 등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수립될 것이다. 이는 향후 로드맵을 실현할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1) 협력사업의 발굴과 2) 공동펀드 조성방안, 3)합작기업(Joint Venture, JV) 혹은 벤처캐피탈(VC) 활성화, 4) 민관산학 협력모델 구현 등 상호 호혜적 공생 방안 마련을 촉진하게 된다.

올해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때문에 2020년은 ‘한-러 상호 교류의 해’로 지정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으로의 도약이 다소 위축되고 있지만, 러시아와 한국 모두 4차 산업 기반의 핵심 요소기술 자립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향후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 패러다임의 완성으로 디지털 실크로드,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 구축 등에 한-러가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주요 통계



표. 2020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9/2020 증가율
극동지역	12.43 (+2.4)	5.91 (+3.9)	18.34	(+3.0%)
북극해	1.21 (-12.2%)	4.74(-8.1%)	5.95	-9.3%
발트해	9.27(-2.4%)	7.75(-1.1%)	17.02	-1.7%
아조프-흑해	6.92(+14.6%)	10.22 (-3.5%)	17.0	+2.9%
카스피해	0.25 (+34.8%)	0.44 (+7.6%)	0.69	+17.9%
합계	29.96(+2.8%)	29.05(-2.1%)	59.01	+0.1%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쇼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297118/>(검색일: 2020년 8월 30일)

b) <https://portnews.ru/news/298567/>(검색일: 2020년 8월 30일)

표. 2020년 6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219,609.9	67,330.9	219,091.0	66,552.3	518.9	778.6
광물 제품	1,293,321. ₈	47,036.6	1,270,259. ₉	21,769.2	23,061.9	25,267.4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086,837. ₈	20,147.3	1,086,775. ₅	20,147.3	62.3	0
생고무 및 화학 제품	5,846.9	63,534.3	5,326.5	63,217.7	520.4	316.6
가죽원료, 모피 제품	2.5	1,320.1	0.3	1,281.5	2.2	38.6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8,196.5	6,827.9	97,613.3	6,679.3	583.3	148.6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402.4	31,383.8	396.3	31,115.6	6.1	268.1
금속 및 금속 제품	24,749.1	52,658.2	24,671.4	51,694.9	77.7	963.3
기계류	10,362.2	458,418.9	9,900.6	458,156.1	461.5	262.8
기타	115,106.7	32,042.5	86,380.2	30,816.8	28,726.6	1,225.7
합계	1,767,598. ₁	760,553.2	1,713,639. ₅	731,283.5	53,958.5	29,269.7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검색일: 2020년 8월 30일)

표. 2020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선어.,냉장어	1.7	6.1	-	-	2	6.1	-	-	-	-	-	-
냉동어	72,788. 1	87,545. 6	1,038	2,129.9	72,788	87,545. 6	1,038	2,129.9	0	0.0	-	-
연어류	1,361.6	4,183.3	-	-	1,362	4,183.3	-	-	0	0.0	-	-
넙치	628.5	2,853.7	-	-	629	2,853.7	-	-	-	-	-	-
가자미	789.4	504.5	-	-	789	504.5	-	-	-	-	-	-
가자미류	2,542.6	2,105.5	-	-	2,543	2,105.5	-	-	-	-	-	-
청어	17,792. 2	12,885. 9	-	-	17,792	12,885. 9	-	-	0	0.0	-	-
대구	6,902.8	18,172. 4	-	-	6,903	18,172. 4	-	-	-	-	-	-
명태	27,510. 8	28,081. 2	-	-	27,511	28,081. 2	-	-	0	0.0	-	-
농어	13.9	67.0	-	-	14	67.0	-	-	-	-	-	-
간, 곤이 (어란)	1,813.3	7,916.2	-	-	1,813	78,890. 9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1,118.4	1,896.1	-	-	1,118	1,896.1	-	-	-	-	-	-
생선 필렛, 어육	1,922.0	5,535.9	82	270.1	1,880	5,425.7	82	270.1	42	110.2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2.8	-79.2	98	569.0	-3	-79.2	98	569.0	0	0.0	-	-

갑각류	6,663.1	98,534. 5	27	194.6	6,663	98,528. 6	27	194.6	-	5.9	-	-
계류	5,860.2	93,019. 8	-	-	5,860	93,013. 9	-	-	-	5.9	-	-
조개류	1,832.9	5,161.2	-	-	1,813	5,137.9	-	-	20	23.3	-	-
가리비	318.5	409.7	-	-	319	409.7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1,296.1	2,814.3	36	184.9	1,276	2,791.0	36	184.9	20	23.3	-	-
수산 무척추 동물	754.5	2,733.4	-	-	755	2,732.2	-	-	0	1.1	-	-
해삼류	185.3	548.5	-	-	185	547.4	-	-	0	1.1	-	-
성게류	569.2	2,184.9	-	-	569	2,184.9	-	-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검색일: 2020년 8월 30일)